

##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김가을<sup>1)</sup> 김소연<sup>2)</sup> 이성애<sup>1)</sup> 남보라<sup>1)</sup> 최재훈<sup>3)</sup> 양은주<sup>4)</sup> 이종은<sup>2)†</sup>

<sup>1)</sup>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 박사수료생 <sup>2)</sup>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 박사과정생  
<sup>3)</sup>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 석사과정생 <sup>4)</sup>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국내 슈퍼비전 연구 동향과 핵심 연계 개념의 확인을 위해 KCI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142편의 연구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2003년 윤리규정 제정, 2018년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항목 신설과 같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제도의 변화가 연구 동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기 1(2004-2017)과 시기 2(2018-2023)로 나눠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기 1은 거시적인 슈퍼비전 목표와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면, 시기 2는 슈퍼비전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미세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높은 빈도의 키워드로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상담’, ‘상담자’가 두 시기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시기 2에서는 ‘윤리’가 등장하였다. 시기와 무관하게 ‘내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4개 토픽으로 분류되었으며, 시기 2에서 슈퍼바이지 특성에 적합한 슈퍼비전 모델과 구조에 대한 연구 비율이 감소하였고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및 전문성 발달 촉진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슈퍼비전 연구의 양과 범위가 성장하고 있으며, 슈퍼비전 연구와 실무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을 지지한다.

주요어 : 슈퍼비전, 상담,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본 연구는 2024년도 4단계 두뇌한국 (BK21)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이종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2865, E-mail : eowhddms@korea.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 OECD 회원국 평균치(2023년 9월 기준 10.6명)의 2배를 웃도는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며(통계청, 2023), 국민의 행복과 사회통합 지수 역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최진영, 이한경, 2022). 이에 OECD는 한국의 자살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권고 내용은 입원 위주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체계로의 개편, 비교적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psychotherapy) 접근성 개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방안 마련,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것이었다(OECD, 2014).

이후 정부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세우고 2016년부터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국내 정신건강 및 자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COVID-19 시기를 거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은 일반 인구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세인 외, 2022). 또한 지자체 단위의 심리 서비스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가 자기계발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라수현 외, 2023). 특히 최근 정부는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의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

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보다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기초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서비스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심리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이기 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 역량이 중요하다(OECD, 2014). 슈퍼비전은 이러한 상담자의 전문적 치료 역량을 발달시키고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슈퍼비전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내담자의 복지를 보장하고 후배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전문직 선배 회원이 후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개입으로, 상담자가 연구에 의해 검증된 공식적인 이론, 관찰과 전문적 경험을 통해 생긴 지식, 수반 기술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Bernard & Goodyear, 2009).

슈퍼비전을 통한 교육과 훈련은 전문성 있는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슈퍼바이저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교사이자 평가자, 치료자,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내담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도 갖게 된다(Bernard, 1998). 이렇듯 많은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는 능숙한 상담자로서의 경험 외에도 슈퍼비전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Dye & Borders, 1990). 기존에 다수의 슈퍼바이저들이 임상 경험 외에 슈퍼비전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던 것과 달리, 점차 슈퍼바이저의 전문역량, 슈퍼비전 교육과 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Watkins, 2012). 아울러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이론 수업과 함께 슈퍼비전 과정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는 슈퍼바이저 훈련 내용과 모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Milne et al., 2009).

국내에서도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은 대체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슈퍼바이저 역량에 대한 기준과 항목, 슈퍼비전 시 슈퍼바이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교육 내용과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소수연, 장성숙, 2011).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상담 경험이나 상담 수련 경험 및 슈퍼비전 경험에만 의존하여 슈퍼비전을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장세미, 장성숙, 2016). 또한 초보 슈퍼바이저는 상담자에서 슈퍼바이저로 역할이 전환되지만 슈퍼비전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해 불안감을 경험하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느끼는 등 역할 정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오효정, 최하나, 2015). 이와 같이 슈퍼비전 역량은 상담자 역량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슈퍼바이저로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2003년 5월 윤리규정을 제정한 이후 2018년에 이르러서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 항목을 신설하였고, 2019년 1월 1일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기존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면 부여하던 주슈퍼바이저의 자격요건에 매년 슈퍼비전 교육 이수 요건을 추가하였다.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비록 현재까지 슈퍼바이저와 관련되는 단

독 윤리 규정은 부재하지만, 수련생에게 적절한 훈련과 지도감독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2016년 윤리강령 개정 시 추가되었다. 이는 상담 실무에서 슈퍼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러한 흐름은 슈퍼비전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국외 상담자 관련 윤리규정이 슈퍼비전 역량과 슈퍼비전의 평가 및 보수교육, 상담교육자의 책임과 학생과의 역할 및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 달리(김화자, 2014), 국내 슈퍼비전 제도 규정은 덜 세부적이며 슈퍼비전 수행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장세미, 장성숙, 2016). 그러나 슈퍼바이저 자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회 측의 제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슈퍼비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증가는 슈퍼비전 모델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슈퍼비전 모델은 1950년대 후반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박성원, 유영권, 2023). 국외에서 처음 슈퍼비전 모델이 제안될 때는 심리치료 이론에 기초한 정신역동 모델, 인지행동주의 모델, 인간중심 모델 등과 같이 특정 심리치료 이론에 기초하여 슈퍼비전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심리치료 이론을 슈퍼비전 모델로 확장하여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그리고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 치료적 접근의 훈련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슈퍼비전의 주체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서로 다른 경우 슈퍼비전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함께 슈퍼비전이 심리치료와 구별되어 교육적 측면으로 강조되면서(Carroll, 1996), 이후에는 여러 이론적 배경을 반영하여 통합적 접근의 슈퍼비전 모델(예, 체계적 슈퍼비전 접근 모델, 발달 모델)이 고안되었다(Bradley & Ladany, 2001; Holloway, 1995). 즉 슈퍼비전 고유의 목적과 구체적인 개입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이나 학자에 따라 슈퍼비전 모델들이 개발된 것이다(박성원, 유영권, 2023).

슈퍼비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모델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Wampold와 Holloway(1997)의 슈퍼비전 인과적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슈퍼비전에 영향을 주는 6개의 슈퍼비전 핵심 구성요소(수퍼바이저 특성, 수퍼바이지 특성, 슈퍼비전 과정, 치료자 훈련, 심리치료 과정, 내담자 특성)들 간의 개념들을 제시한다. 모델의 6개의 핵심 구성요소들은 양방향의 인과적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되며, 구성요소들이 연구 주제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권혜영, 조은숙, 2020). 이와 같이 Wampold와 Holloway(1997) 모델이 가지는 포괄성은 슈퍼비전의 개념과 목적, 슈퍼비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인들, 슈퍼비전 방식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권혜영, 조은숙, 2020; 박성원, 유영권, 2023; 장재희, 2023; Haynes & Lench, 2003).

슈퍼비전 모델의 발전은 슈퍼비전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슈퍼비전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나 연구방법론도 다양한 측면으로 다뤄지고 있다(박성원, 유영권, 2023; Watkins et al., 2021). 슈퍼비전 연구들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부터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근거로 한 슈퍼비전 모델에

따른 연구까지 차이를 보인다. 국외 슈퍼비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슈퍼비전의 역할과 기능, 슈퍼비전 성과, 슈퍼비전 윤리,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성, 슈퍼비전과 연관 있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각각의 개인 특성요인, 슈퍼비전 동향 연구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Gazzola & Teiault, 2007; Soheilian et al., 2014; Watkins et al., 2021; Westefeld, 2009).

한편 국내에서 슈퍼비전 연구는 김계현(1992)의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활발하게 수행되었다(두경희 외, 2008). 국내 슈퍼비전 연구들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면, 수퍼바이지의 심리적 소진감(성모아, 2017; 이승미 외, 2019), 자기효능감(이다슬, 2016; 정미선, 2015), 역전이(김양선, 신효정, 2017), 발달과정(김정희, 안귀여루, 2018; 김정희, 하정희, 2020; 허재경, 김지현, 2009) 등과 같은 수퍼바이지의 특성과 경험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 외에도 수퍼바이저의 발달수준(윤성근 외, 2018; 이두희, 장유진, 2019; 정갑선, 김영근, 2023), 초심 수퍼바이저가 경험하는 불안감과 긴장감, 역전이 등의 내적역동(오효정, 최한나, 2015; 이홍숙, 최한나, 2013), 수퍼바이저의 기능과 스타일(강은희, 2004; 김윤주, 2004; 홍지영, 2008) 등과 같이 수퍼바이저의 특성을 다룬 연구가 있다. 또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작업동맹(강순화 외, 2014; 김혜련, 2022),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인식차원(최한나, 김창대, 2008), 슈퍼비전 과정이 수퍼바이지 발달과정에 미치는 역할(김정희, 하정희, 2020)과 같은 슈퍼비전 관계나 과정에 대한 연구 등도 진행되었다. 아울러 슈퍼비전 성과와 만족도(박명준 외, 2017; 손은정 외, 2006; 정갑선, 김영근, 2023; 홍지영, 2008) 등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슈퍼비전 윤리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고홍월 외, 2015, 2016; 손은정, 2010; 안하얀 외, 2017; 이정민 외, 2021; 장세미, 장성숙, 2016).

이와 같이 국내 슈퍼비전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조직화하고 통합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슈퍼비전 연구 결과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은실 외(2022)는 질적 메타요약을 활용하여 국내 슈퍼비전 질적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슈퍼비전 관계, 슈퍼비전 환경, 슈퍼바이저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슈퍼비전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슈퍼비전에 대한 동향 연구들은 보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국내 동향 연구들은 앞서 기술한 Wampold와 Holloway(1997)의 인과적 모델을 슈퍼비전 연구의 주요 분석틀로 활용하고 있는데,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연구와 이후 권혜영과 조은숙(2020)의 연구 모두 이에 기초하여 국내 연구 동향을 조직화하였다. 이들 동향 연구에 의하면,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는 전반적으로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제나 연구방법론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Wampold와 Holloway(1997)의 인과적 모델의 각 요소들 중에서 대체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특성, 슈퍼비전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다. 반면 내담자 특성, 치료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추후 관련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권혜영, 조은숙, 2020; 김지연, 김광웅, 2008).

이와 같이 동향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들의 경향

성을 파악하고 해당 연구 주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연구 주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정연택, 류호상, 2009; 최지은, 2019). 슈퍼비전에 대한 동향 연구는 지금까지 슈퍼비전 연구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슈퍼비전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연구자들에게 슈퍼비전에 대한 정보와 후속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동향 연구 분석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는 연구자가 하나의 논문을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통계분석’ 등의 범주로 설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가 수집된 논문을 동향 분석의 준거로 설정한 범주에 할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한 범주에 속한 논문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이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다’라는 성급한 연구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조남옥, 조규락, 2017). 두 번째 문제는 만약 하나의 연구가 복합적인 범주를 다루고 있을 시 그 연구를 하나의 범주로 할당해야 하는지 혹은 여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가 연구 주제의 범주들 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조남옥, 조규락, 2017).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모든 데이터를 노드(개체)화하여 이들 간의 링크(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재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

용학, 2003; Alexander, 2009).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는 ‘공동 연구 분석’, ‘저자 동시 인용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있는데(김경식, 2015), 이 중 최근 심리 상담 영역에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정철 외, 2020; 이후희, 황순영, 2019; 정정희, 이효립,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의미를 나타낼 만한 개념을 키워드 형태로 추출하여 그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 텍스트의 의미를 내용으로 분석한다(이수상,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해당 논문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키워드(즉, 주제어)를 통해 연구자의 관심 사항(예, 특정 연구 주제나 대상)에 대한 빈도 분석을 비롯하여 지식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즉 특정 단어와 동시 출현하는 단어를 분석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한 현상이나 시점의 이해 및 미래 예측을 위한 맥락적 근거를 얻을 수 있고 전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이보람, 정은경, 2016).

더불어 연구 동향의 분석에서 토픽모델링 기법은 토픽(주제)별 중요도와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인하여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토픽모델링은 기존의 자료와 자료의 텍스트에 잠재된 주제들을 찾아내고 각각의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Blei, 2012). 각 연구들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토대로 연구에서 전체의 토픽을 추정하고, 각각의 연구에 해당하는 토픽들과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까지 확률분포에 따라 자동으로 추출한다(이수상, 2018). 국내 수퍼비전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다면,

수퍼비전의 구성요소를 범주로 유형화하여 잠재된 주제를 찾아 각 주제들의 연관성이나 분포를 탐색하여 통합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퍼비전 동향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분석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토픽모델링에는 Latent Semantic Analysis(LSA)와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라는 두 가지의 알고리즘 방법이 있다. LDA는 문서가 생성될 때 단어들이 어떠한 토픽에 속할지 그 확률을 계산하여 토픽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론이 복잡하지만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감정분석 등 다른 데이터마이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DA는 문서 내에 있는 단어들은 관찰할 수 있는 변수로 보며, 문서의 토픽 구조는 숨겨진 변수로 본다. LDA 기법을 통해 연구문헌 텍스트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잠재되어있는 토픽을 찾는 것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들에서 일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은 알고리즘에 따라 분류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특정 주제에 대한 동향 분석에 있어서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은 전체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토픽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만든다(이수상, 2018). LDA를 통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주제 관련 핵심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구성요소 유형에 대한 재해석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LDA 방식을 활용한 토픽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수퍼비전 동향 연구들에서 주요 토픽(주제)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담자 자격 및 윤리제도의 공식화 시기를 기준으로 시기별 구분을 통해 수퍼비전 동향 관련 토픽

들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슈퍼비전 연구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자격 및 윤리 규정의 개정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슈퍼비전 연구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슈퍼바이저 교육에 대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슈퍼비전 연구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8년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국내 최초로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이라는 슈퍼비전과 관련된 단독 항목을 윤리규정에 신설한 시기로, 이후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시행세칙으로 지정하여 의무화하는 기초가 되었다. 비록 단일 학회의 제도적 변화이기는 하나, 한국상담심리학회는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주요 학회일 뿐 아니라, 슈퍼바이저 교육을 명시한 단독 규정이 제정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요 제도적 변화로 고려하여 이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통해 개별적이며 산발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보이는 슈퍼비전 연구들의 현황, 연구 주제 분포 및 슈퍼비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와 토픽모델링 분석은 연구물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자료로 하여 이들의 빈도와 연결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평정한 주제의 빈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향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 선행연구들을 체계화하고, 그 지식구조를 다각도로 확인하며,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추후 슈퍼비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선정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슈퍼비전 선행연구들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하여 살펴볼 때 슈퍼비전의 지식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수련 감독 및 수련감독자에 대한 윤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전(시기 1, 2004년~2017년)-후(시기 2, 2018년~2023년)로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볼 때 슈퍼비전 연구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슈퍼비전 동향 연구의 주요 토픽을 살펴볼 때 시기별 토픽의 추이는 어떠한가?

## 방 법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심리 상담의 슈퍼비전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수집한 논문의 초록이며, 분석에 포함하는 키워드(주제어)를 NetMiner의 포합어 사전에 등록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이수상, 2018). 먼저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고, 데이터 정제화 작업을 실시한 후에 연도에 따른 논문 게재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논문에 등장하는 키워드의 패턴을 탐색하였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심리 상담 슈퍼비전 연구 키워드 사이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을 확인하였

다(이정락 외, 2022; 정원준, 2022).

### 자료수집

본 연구에 활용한 학술논문 서지 데이터는 NetMiner 4의 Biblio Data Collector 기능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물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 총 142편이다. 검색키워드는 초록 기준으로 ‘상담자’ 또는 ‘수퍼비전’ 또는 ‘슈퍼비전’ 또는 ‘수퍼바이저’ 또는 ‘슈퍼바이저’ 또는 ‘수퍼바이저’ 또는 ‘슈퍼바이저’ 이었고, 총 2,51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였고, 수퍼비전 교육과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과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5인(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박사수료생 3인, 박사과정생 2인), 본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 경험이 있는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석사과정생 1인이 초록과 원문을 검토하여 언어 기반의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에 대한 수퍼비전이 아닌 연구(사회 복지, 종교, 매체 치료, 직무 교육에 대한 수퍼비전)를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 논문 선별 과정에서 2,373편이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KCI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142편의 연구물이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 데이터 정제화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물에서 저자가 지정한 키워드를 활용하였다. 단, 색인 효과를 방지하고 같은 것을 지칭하지만 다르게 표기된 형태를 조정하기 위해 정제작업이 필요하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키워드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이정락 외, 2022). 키워드 정제작업에는 자료 수집에 참여한 동일한 연구진이 참여하였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NetMiner 프로그램의 키워드 인식 오류가 없도록 각 연구물 초록의 오타자를 수정하고 특수기호를 제거했다. 또한, 키워드의 띄어쓰기를 삭제하였고, 외국어 표기와 외래어를 한국어로 수정하여 동일한 의미의 키워드로 변환하였다. 또한, 유사한 개념의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로 통일하였다.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정제키워드는 총 302개였고, 유사한 개념의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로 인식하도록 유의어 사전과 정제어 사전을 등록하였다.

표 1. 주제어(키워드) 정제와 코딩 예시

구분	정제 내용	예시
1	초록 및 키워드 기본 교정	· 인간-과정 모형 → 인간과정모형 · 대인간과정 회상(IPR) → 대인간과정회상 IPR
2	대표 키워드화	· 슈퍼비전 → 수퍼비전 · CQR-M, CQR, 합의적질적연구 → 합의적질적연구방법
3	유의어 사전	· 동료 수퍼비전 모형, 동료 수퍼비전 모델 → 동료수퍼비전모형 · CQR-M, CQR, 합의적 질적 연구 → 합의적질적연구방법 ·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수퍼비전, 다문화 수퍼비전 → 다문화상담수퍼비전

## 결 과

## 학술지별 논문 게재 편수

### 발행 연도별 논문 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논문 142편의 발행 연도 별 논문 수는 그림 1과 같다. 2004년 2편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발행된 논문 수는 36편이었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6편이었다. 2015년과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슈퍼비전 관련 윤리규정 및 시행세칙 신설 시기를 기준으로 2018년 이전을 시기 1(2004년~2017년), 이후를 시기 2(2018년~2023년)로 나누어 발행된 논문 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은 64편이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논문은 78편으로 총 9.8%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논문의 학술지별 논문 게재 현황은 표 3과 같다. 총 36개 학술지 중 5편 이하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33개(91.7%)로 슈퍼비전 연구가 특정 학술지(상담학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빈도분석(Term Frequency) 결과

빈도분석은 수집한 문서들 내 키워드의 빈도를 산출한 것으로, 빈도가 상위에 있을수록 해당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빈도분석은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출간된 논문(시기 1)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논문(시기 2)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서는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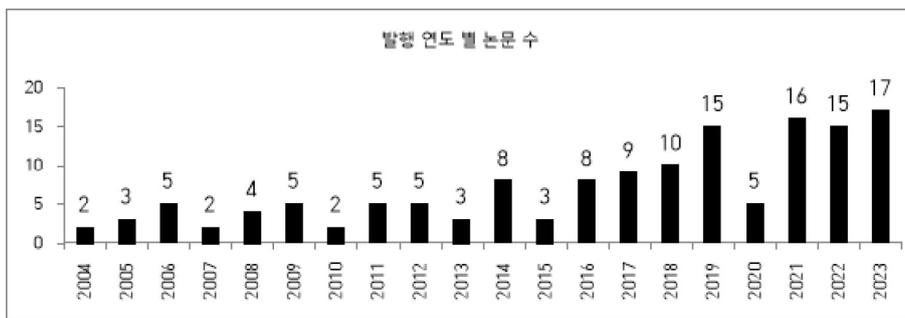


그림 1. 발행 연도 별 논문 수

표 2. 2018년 이전, 이후 발행 논문 수

발행 연도	시기 1(2004-2017)	시기 2(2018-2023)	계
논문(편)	64	78	142
비율(%)	45.1	54.9	100

표 3. 연구 대상 논문의 학술지별 게재 편수

학술지명	논문(편)	학술지명	논문(편)						
Crisisonomy	1	아시아교육연구	4						
가족과 가족치료	1	인간이해	5						
교류분석상담연구	2	인문사회21	1						
교원교육	1	재활심리연구	2						
교육과학연구	1	질적탐구	2						
교육인류학연구	1	청소년상담연구	1						
교육치료연구	3	청소년학연구	1						
다문화교육연구	1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1						
목회와상담	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문화와융합	1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						
발달지원연구	1	한국놀이치료학회지	5						
복지상담교육연구	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						
사회과학연구	1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						
상담심리교육복지	4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						
상담학연구	41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						
신학과 사회	1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	한국웰니스학회지	1						
심리유행과 인간발달	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4						
논문(편)	1	2	3	4	5	15	28	41	계
학술지(개)	22	4	2	3	2	1	1	1	36
비율(%)	61.1	11.1	5.6	8.3	5.6	2.8	2.8	2.8	100

의한 수준의 통계적 절단점을 제안하지 않고 있어 선행연구들에서도 연구자의 결정에 따라 상위 키워드를 제시한 바(임유하, 2021; Kim & Gil, 2019), 본 연구에서는 상위 10위까지의 키워드들을 제시하였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51개의 키워드 중 빈도 상위 10위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퍼비전(226)’, ‘수퍼바이저(149)’, ‘수퍼바이저(143)’, ‘상담(96)’, ‘상담자(93)’, ‘수퍼비전만족도(56)’, ‘작업동맹(46)’, ‘학

교상담자(45)’, ‘영향(38)’, ‘집단수퍼비전(35)’로 분석되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빈도 상위 10위는 ‘수퍼비전(168)’, ‘수퍼바이저(143)’, ‘상담(128)’, ‘상담자(106)’, ‘수퍼바이저(106)’, ‘영향(58)’, ‘윤리(54)’, ‘초심상담자(37)’, ‘교육(36)’, ‘집단수퍼비전(36)’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이전에 빈도 순위 14위 ‘윤리’, 45위 ‘초심상담자’, 12위 ‘교육’이 2018년 이후 각각 7위, 8위, 9위로 상승하였다. 2018년 윤리규정 개정

표 4. 슈퍼비전 연구 키워드 출현 빈도 상위 10위

시기 1(2004-2017)			시기 2(2018-2023)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1	수퍼비전	226	1	수퍼비전	168
2	수퍼바이저	149	2	수퍼바이저	143
3	수퍼바이저	143	3	상담	128
4	상담	96	4	상담자	106
5	상담자	93	5	수퍼바이저	106
6	수퍼비전만족도	56	6	영향	58
7	작업동맹	46	7	윤리	54
8	학교상담자	45	8	초심상담자	37
9	영향	38	9	교육	36
10	집단수퍼비전	35	10	집단수퍼비전	36

에 따른 초심상담자 교육과 관련한 슈퍼비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 TF-IDF 분석(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결과

빈도가 높은 키워드라도 모든 문서에서 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을 수 있기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집된 문서 내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이 TF-IDF이다(김수현 외, 2020; 이성직, 김한준, 2009). TF-IDF는 한 문서(본 연구 내에서는 하나의 논문 초록) 내에 있는 키워드의 빈도(Term Frequency)와 키워드가 등장하는 문서 수의 역수(Inverse Term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키워드의 TF-IDF가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Ramos, 2003).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시기 1)과 2018년부터 2023년까

지의 논문(시기 2)의 TF-IDF를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51개의 키워드 중 출현빈도-역문서빈도 상위 10위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성(7)’, ‘상담자교육(7)’, ‘학교상담자(6)’, ‘집단수퍼비전(6)’, ‘질적연구(6)’, ‘윤리(6)’, ‘R통계프로그램(6)’, ‘사례개념화(6)’, ‘발달단계(6)’, ‘개인수퍼비전(6)’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03개의 키워드 중 출현빈도-역문서빈도 상위 10위의 단어는 ‘초심수퍼바이저(9)’, ‘초심상담자(8)’, ‘조절효과(8)’, ‘작업동맹(8)’, ‘자기개방(8)’, ‘집단수퍼비전(7)’, ‘윤리(7)’, ‘R통계프로그램(7)’, ‘수퍼비전만족도(7)’, ‘개인수퍼비전(7)’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이전 출현빈도-역문서빈도 순위 11위 ‘초심수퍼바이저’, 42위 ‘초심상담자’, 46위 ‘조절효과’, 30위 ‘작업동맹’, 13위 ‘자기개방’, 146위 ‘수퍼비전만족도’가 2018년 이후 순위에서는 크게 상승하였다.

표 5. 수퍼비전 연구 키워드 출현빈도-역문서빈도 상위 10위

시기 1(2004-2017)			시기 2(2018-2023)		
순위	키워드	TF-IDF	순위	키워드	TF-IDF
1	전문성	7	1	초심수퍼바이저	9
2	상담자교육	7	2	초심상담자	8
3	학교상담자	6	3	조절효과	8
4	집단수퍼비전	6	4	작업동맹	8
5	질적연구	6	5	자기개방	8
6	윤리	6	6	집단수퍼비전	7
7	R통계프로그램	6	7	윤리	7
8	사례개념화	6	8	R통계프로그램	7
9	발달단계	6	9	수퍼비전만족도	7
10	개인수퍼비전	6	10	개인수퍼비전	7

###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분석한 TF-IDF 2-mode-network를 1-mode-network로 변환하여 동시출현 빈도분석, link reduction simul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시출현 빈도가 2회 이상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키워드 간 직접적인 연결을 기반으로 측정되어 직접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추론할 수 있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 최단 경로에서 매개하는 정도를 기반으로 측정되어 네트워크의 전체 정보의 흐름에 미치는 통제력을 추론할 수 있다. 위세중심성(eigenvalue centrality)은 해당 키워드와 연결된 다른 키워드들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준 것으

로, 직접적 연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까지 모두 고려된다. 따라서 위세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윤안순, 박효영, 2024).

###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두 시기의 연결중심성 상위 10위까지의 키워드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에는 ‘발달단계’의 연결중심성이 0.06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성’(0.066), ‘학교상담자’(0.053), ‘근거이론’(0.046), ‘수퍼비전내용’(0.040)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기에는 ‘거절’의 연결중심성이 0.137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역할갈등’(0.137), ‘회피’(0.137), ‘개인수퍼비전’(0.120), ‘상담자소진’(0.120)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았다.

표 6.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시기 1(2004-2017)			시기 2(2018-2023)		
키워드	연결중심성		키워드	연결중심성	
1	발달단계	0.066	1	거절	0.137
2	전문성	0.066	2	역할갈등	0.137
3	학교상담자	0.053	3	회피	0.137
4	근거이론	0.046	4	개인수퍼비전	0.120
5	수퍼비전내용	0.040	5	상담자소진	0.120
6	질적연구	0.040	6	자기개방	0.120
7	집단수퍼비전	0.040	7	조절효과	0.120
8	학교상담	0.040	8	윤리	0.103
9	수퍼비전모델	0.033	9	수퍼바이저지지	0.086
10	역량강화	0.033	10	애착전략	0.086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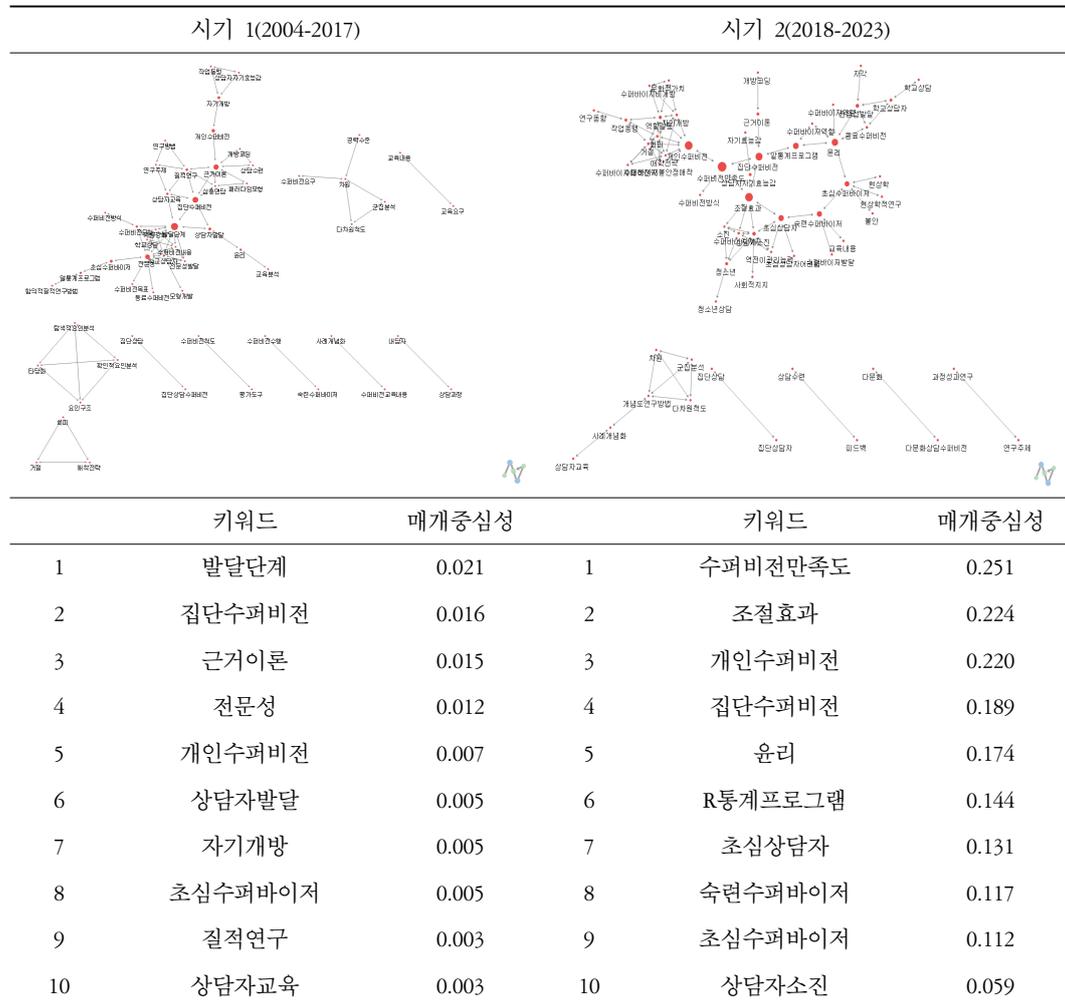
두 시기의 매개중심성 상위 10위까지의 키워드는 표 7과 같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에는 ‘발달단계’의 매개중심성이 0.021으로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집단수퍼비전’(0.016), ‘근거이론’(0.015), ‘전문성’(0.012), ‘개인수퍼비전’(0.007)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기에는 ‘수퍼비전만족도’의 매개중

심성이 0.251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조절효과’(0.224), ‘개인수퍼비전’(0.220), ‘집단수퍼비전’(0.189), ‘윤리’(0.174)의 순서로 매개중심성이 높았다.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두 시기의 위세중심성 상위 10위까지의 키워드는 표 8과 같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기에는 ‘학교상담자’의 위세중심성이 0.445

표 7.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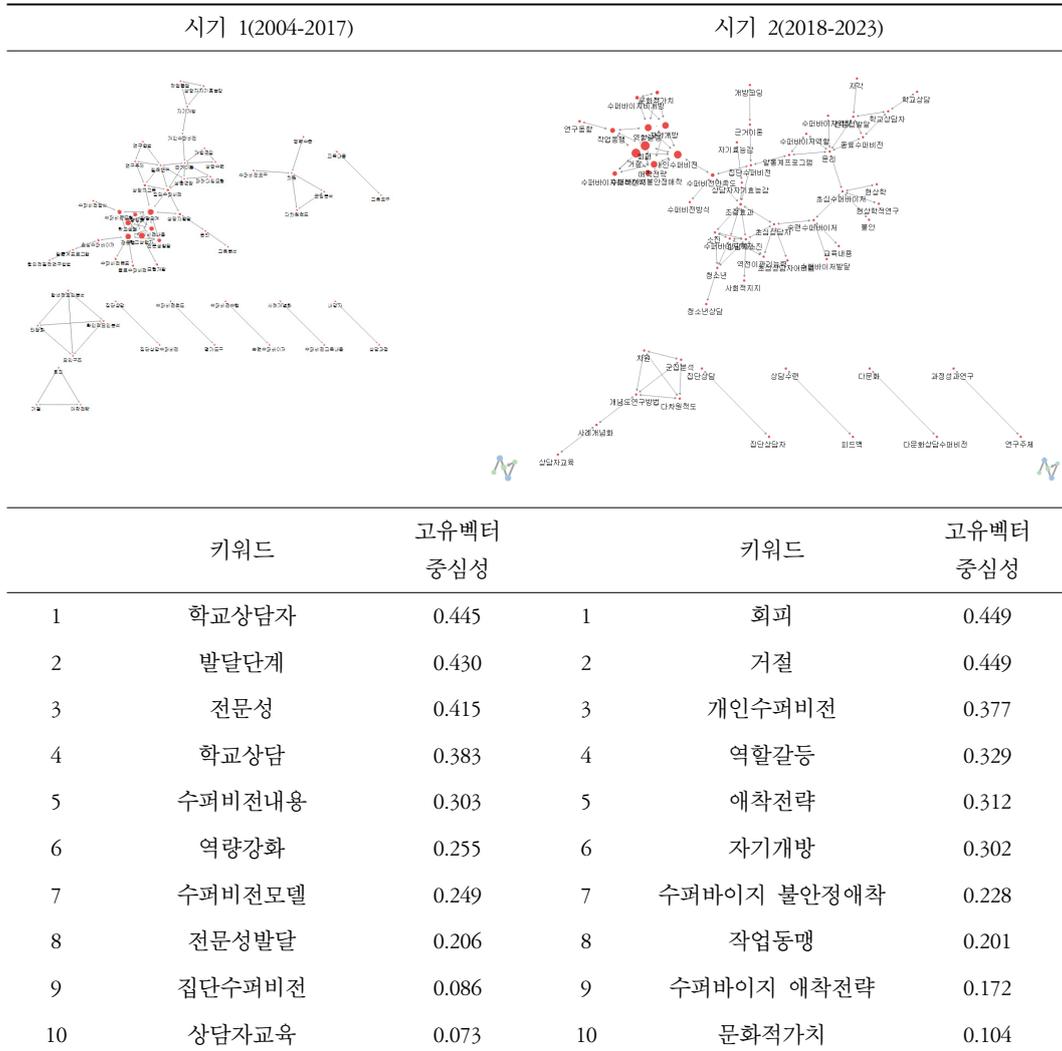


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발달단계’ (0.430), ‘전문성’(0.415), ‘학교상담’(0.383), ‘수퍼비전내용’(0.303)의 순서로 위세중심성이 높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기에는 ‘회피’의 위세중심성이 0.4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거절’(0.449), ‘개인수퍼비전’(0.377), ‘역할갈등’(0.329), ‘애착전략’(0.312)의 위세중심성이 높았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국내 수퍼비전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LDA 방식으로 잠재적 토픽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LDA 연구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단어 수의 분포를 분석하여 숨겨져 있는 토픽들을 예측하는 확률모델이다. 토픽모델링에서 토픽의 개수(k)는 혼잡도를 선

표 8. 위세중심성 분석결과



택하거나, 특별한 정답이 없기에 연구자가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정할 수 있다(김영우, 2017; Blei & Jordan, 2003). 토픽의 개수와 토픽명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그 토픽명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현용찬 외,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토픽의 개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NetMiner의 토픽모델링 평가(Evaluation of Topic Models) 기능

을 활용하였다. 토픽 일관성(coherence value)은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일관성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이후 토픽모델링 평가에서 산출된, 토픽 일관성이 가장 높은 토픽 수에 맞추어 분류된 주제어들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각 토픽에 대한 토픽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시기별 분포에 따라 수퍼비전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시기(2004

년~2023년)와 각 시기별로 4개 토픽의 비중을 확인하였으며, 시기 1(2004~2017)과 시기 2(2018~2023)에서 토픽의 비중 변화를 비교하였다.

### 전체시기 기준 토픽모델링

전체시기 슈퍼비전 연구 동향 관련 데이터를 LDA 방식을 활용하여 잠재 토픽을 추출하였으며 그 토픽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에서 토픽별 괄호 안 수치는 ‘가중치’로 해당 특정 단어가 해당 토픽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가중치가 높은 단어일수록 해당 토픽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로 간주된다. 토픽 수의 결정을 위해  $\alpha$  0.7,  $\beta$  0.02, iteration 1000을 기준으로 토픽 일관성 값을 산출한 결과 토픽이 4개인 경우, 토픽일관성 수치가 0.663으로 1에 가까운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 이에 최적의 토픽 개수( $k$ )는 4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토픽의 내용을 살펴보면, TOPIC 1은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윤리, 초심슈퍼바이저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슈퍼바이저 역할과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TOPIC 2는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만족도, 작업동맹, 영향, 자기개방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슈퍼비전 과정과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TOPIC 3은 슈퍼비전, 상담, 상담자, 학교상담자, 슈퍼비전경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슈퍼바이저 특성에 적합한 슈퍼비전 모델과 구조]와 관련된 요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TOPIC 4는 상담자, 초심상담자, 상담자소진, 역전이 관리능력, 슈퍼바이저지지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슈퍼비전]과 관련된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 전체시기 기준 토픽 분류 결과 및 시기별 각 토픽의 비중 변화

전체시기 기준에 대한 토픽 분류 결과, [Topic-1: 슈퍼바이저 역할과 전문성 발달]은 슈퍼비전과 슈퍼바이저 자체를 연구 주제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체 논문 중 53편(37.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슈퍼비

표 9. 전체시기 기준 슈퍼비전 토픽일관성 분석 결과

Topic	Topic-1	Topic-2	Topic-3	Topic-4
1st	슈퍼바이저 (.223)	슈퍼바이저 (.148)	슈퍼비전 (.162)	상담자 (.085)
2nd	슈퍼비전 (.135)	슈퍼비전만족도 (.109)	상담 (.156)	초심상담자 (.069)
3rd	슈퍼바이저 (.101)	작업동맹 (.093)	상담자 (.116)	상담자소진 (.061)
4th	윤리 (0.063)	영향 (.091)	학교상담자 (.057)	역전이관리능력 (.054)
5th	초심슈퍼바이저 (.042)	자기개방 (.072)	슈퍼비전경험 (.045)	슈퍼바이저지지 (.047)

전 요소에 관한 슈퍼바이저의 지각 연구(소수 연, 장성숙, 2011)',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전정운, 한재희, 2012)'와 같은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Topic-2: 슈퍼비전 과정과 만족도]는 슈퍼비전의 일반적인 과정과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 만족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전체 논문 중 26편(18.3%)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 및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강순화 외, 2014)', '경험연구: 슈퍼비전 작업 동맹, 역할 어려움, 슈퍼비전 만족도 간의 관계: 비교문화 연구(손은정 외, 2007)'와 같은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Topic-3: 슈퍼바이저 특성에 적합한 슈퍼비전 모델과 구조]는 슈퍼바이저 특성이 고려된 슈퍼비전의 구성요소 및 구조적 특징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전체 논문 중 38편(26.8%)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초심상담자 슈퍼비전 모델 개발(장재희, 2023)', '학교상담자 발달 단계별 슈퍼비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허난설, 2016)'와 같

은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Topic-4: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슈퍼비전]은 상담자(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도전을 극복하고 발달하는데 있어서 슈퍼비전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논문 중 25편(17.6%)이 이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어, '슈퍼바이저의 지지와 상담자 소진 관계에서 역전이 관리능력의 조절효과(이연옥 외, 2021)', '초심상담자의 상태 불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과 슈퍼바이저 지지가 미치는 영향(김양선, 신호정, 2017)'과 같은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이어 시기별로 4개 토픽의 비중 변화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로, [Topic-4: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슈퍼비전]은 시기 1에서 전체 중 가장 적은 비중(10.9%)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증가하여, 시기 2에서 전체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23.1%)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Topic-1: 슈퍼바이저 역할과 전문성 발달]과 [Topic-2: 슈퍼비전 과정과 만족도]는 시기 1과 시기 2에서 그 비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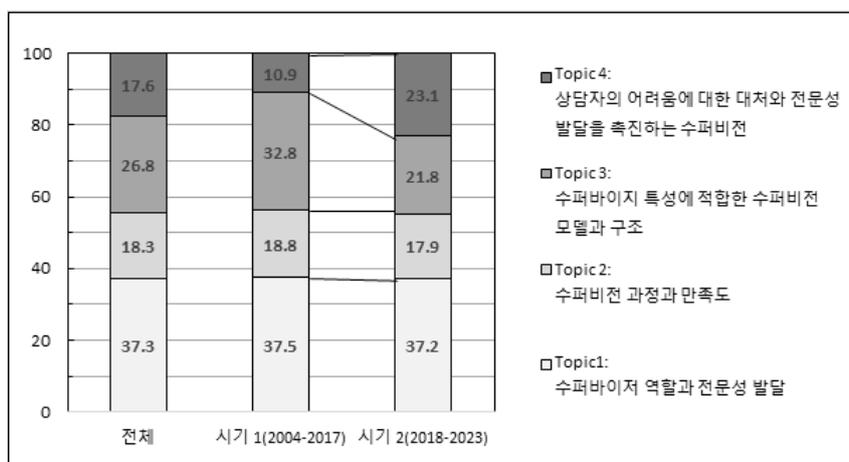


그림 2. 전체시기 및 시기 구분에 따른 4개 토픽의 비중 및 변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Topic-3: 수퍼바이지 특성에 적합한 수퍼비전 모델과 구조]는 시기 1에서 전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32.8%)을 차지하였는데 시간이 흘러 시기 2에서 다소 비중(21.8%)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심리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출판된 142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수퍼비전에 대한 단독 항목을 윤리규정에 포함시키고 수퍼비전 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한 시점이 수퍼비전에 대한 관점의 변화(수퍼비전을 상담자의 역할에 수반되는 영역으로 보던 관점에서 보다 윤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반영한다고 상정하였다. 이에 심리 상담의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를 시기 1(2004년~2017년), 시기 2(2018년~2023년)로 나누어 시기에 따른 연구의 동향 및 지식구조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수퍼비전 연구에 대해 범주별 분류를 통해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연계 개념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 심리 상담에서의 수퍼비전 연구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퍼비전 연구의 지식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의 심리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연구는 양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기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시기 1(2004년~2017년)은 14년 간의 연구 수가 64편(45.1%)인 반면, 시기 2(2018년~2023년)는 6년 간 78편(54.9%)으로 짧은 기간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연구가 출판되었다. 즉 시기 1은 연간 평균 4.57편, 시기 2는 연간 평균 13편이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증가 추세는 작업동맹이나 집단 상담, 상담자의 자기 성찰과 관련된 다른 상담심리 주제에 대한 동향 연구들에서도 관찰되고 있다(김수안, 김명찬, 2023; 김수진, 2024; 김은하, 박승민, 2011). 이를 함께 고려할 때, 수퍼비전 연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상담심리 분야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출현 빈도(TF)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시기 1과 시기 2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출현 빈도(TF) 상위 5위 내 키워드는 ‘수퍼비전’,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지’, ‘상담’, ‘상담자’로, 심리 상담 수퍼비전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심리 상담과 심리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라 볼 수 있을 ‘내담자’는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에서 출현빈도 상위 10위 내 키워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결과는 수퍼비전에 대한 선행 동향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권혜영, 조은숙, 2020; 김지연, 김광웅, 2008). 한편 앞서 진행된 동향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논문에서 실제 사용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내담자’가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수퍼비전 연구에서 내담자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거의 연구 내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슈퍼비전과 내담자 치료 효과의 관계 및 병렬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국외 연구 동향(Cassoni, 2007; Haugaard Jacobsen, 2007; Mazzetti, 2007; Tracey et al., 2012; Watkins, 2011; Zetzer et al., 2020)과 차이를 보인다. Haugaard Jacobsen(2007)은 상담 회기와 그 후 슈퍼비전, 슈퍼비전 후 회기에서의 병렬과정과 이를 슈퍼비전 장면에서 다룸으로써 치료 장면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또한 Zetzer(2020)는 9명의 슈퍼바이저들이 사례에서 나타난 병렬과정에 대해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해 슈퍼비전의 병렬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의 성찰과 통찰력, 이해의 촉진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슈퍼비전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이자(dyad) 관계가 중심이며, 내담자를 포함하는 삼자(triad) 관계를 고려하는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출현 빈도(TF)에 있어서 두 시기의 상위 키워드가 유사하나, 시기 2에서 ‘윤리’가 상위 10위 안에 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8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에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 항목이 신설된 이후, 슈퍼비전 연구에서 윤리가 보다 보편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다는 점은 연구와 실무의 연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과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에서의 요구에 대한 반영으로 윤리규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후 연구 장면에서도 슈퍼비전의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보편적 가치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현장과 연구의 연계성은 상담심리학의

과학자-실무자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Baker & Benjamin, 2000; Lampropoulos et al., 2002), 두 영역의 상호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 연구 내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표상하는 출현빈도-역문서 빈도(TF-IDF)를 기준으로 보면, 시기별 주요 차이점의 하나로 상담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용적 요소에 대한 주제에서 슈퍼비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과정적 요소에 대한 주제로 연구 관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기 1에서는 슈퍼비전 내용(‘전문성’, ‘상담자 교육’, ‘사례개념화’)이 상위 키워드인 반면, 시기 2에서는 슈퍼비전 과정(‘작업동맹’, ‘자기개방’)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찰하면 슈퍼비전 연구는 슈퍼비전 모델의 전반적인 틀을 제안하고 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연구들에서 시작하여, 실제 슈퍼비전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미세 과정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외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초기에는 보다 슈퍼비전의 전문성, 슈퍼비전 모델, 윤리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에 이어, 이후로는 슈퍼비전 관계와 이와 관련한 개인적이고 심리내적인 주제들이 슈퍼비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적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Bernard & Goodyear, 2009)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슈퍼비전 참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시기 2에서는 시기 1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슈퍼바이저 특징(‘초심 슈퍼바이저’)이 주요 키워드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슈퍼비전 연구의 관심이 슈퍼바이저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비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1998년~2008년을 대

상으로 한 김지연과 김광웅(2008)의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윤리, 슈퍼바이저 훈련과 관련된 연구가 0편에 해당하였으나, 2009년~2019년을 대상으로 한 권혜영과 조은숙(2020)의 연구에서는 각각 3편과 5편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슈퍼바이저에 대한 관심의 증가 양상은 슈퍼비전 역량을 상담과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을 강조하는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기 1의 경우 학교 상담자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2005년 교육지원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이후 2007년 전국 확대와 같은 전문상담교사와 관련한 시기상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들이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현장의 요구 및 변화는 연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시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해지는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흥미로운 점은 ‘윤리’가 시기별 출현빈도(TF)와 출현빈도-역문서 빈도(TF-IDF) 분석 결과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출현빈도-역문서 빈도(TF-IDF) 분석 결과에서 ‘윤리’는 모든 시기에서 상위 키워드로 포함되었으나, 출현빈도(TF) 분석의 경우 시기 2에서만 상위 키워드로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슈퍼비전 연구에 있어서 윤리를 중요 주제로 다루는 연구는 시기에 관계없이 유사하였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윤리가 주요 연구 주제가 아니더라도 윤리를 언급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슈퍼비전 연구에서 윤리적 요소를 보다 보편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중심성을 통해 영향력이 높은 주제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시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슈퍼비전의 효과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시기 1은 역량, 교육, 전문성과 같은 거시적이고 보다 슈퍼비전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타난 반면, 시기 2는 상담자 소진, 만족도, 슈퍼바이저의 지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나타났다. 이어서 슈퍼비전의 내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시기 1은 슈퍼비전 모델과 슈퍼비전의 내용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어가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반면, 시기 2는 회피, 거절, 애착과 같은 관계적인 행동과 관련된 주제어가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이는 출현빈도-역문서 빈도의 결과와 함께 슈퍼비전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연구 초점에서 보다 미세 과정에 대한 연구로 발전함에 따른 주제어들로 보인다. 한편 이 결과를 슈퍼비전 연구 동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슈퍼비전의 인과적 모델(Wampold & Holloway, 1997)과 비교하면, 시기 1에는 인과적 모델의 슈퍼비전 과정 요소 중 슈퍼비전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연구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시기 2에는 인과적 모델의 슈퍼비전 과정 요소 중 슈퍼비전 과정에서의 관계, 경험과 슈퍼바이저 특성 요소와 관련된 주제어들이 연구 내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개중심성을 살펴보았을 때, 시기 간의 연구법과 관련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시기 1은 질적 연구와 관련이 높은 주제어들이 나타났으며, 시기 2는 양적 연구와 관련이 높은 주제어들이 나타났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형태를 통해 전반적인 주제의 군집화를 살펴보면, 시기 1은 보다 산

발적인 형태를 보이는 반면, 시기 2는 집중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집화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즉, 시기 1은 발달 단계와 역량 강화에 대한 전문가 발달의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초기 형태의 연구들이 실시된 반면, 시기 2는 소진이나 만족도 등의 슈퍼비전의 직접적인 결과 및 구체적인 과정 안에서 관계적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의 조절효과나 매개효과 등의 개념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슈퍼비전에 대한 전체 연구들은 ‘수퍼바이저 역할과 전문성 발달’, ‘수퍼비전 과정과 만족도’, ‘수퍼바이저 특성에 적합한 수퍼비전 모델과 구조’,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수퍼비전’에 대한 4개 토픽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Wampold와 Holloway의 모델(1997)로 분석한 기존 동향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Topic 1(수퍼바이저 역할과 전문성 발달)은 수퍼바이저의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로, 기존 동향 연구에서 언급한 주제 분류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반면 본 연구의 Topic 2(수퍼비전 과정과 만족도), Topic 3(수퍼바이저 특성에 적합한 수퍼비전 모델과 구조), Topic 4(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수퍼비전)는 선행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와 치료자 훈련 관련 주제들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방법과 동향 연구의 분류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동향 연구의 경우 더 두드러진 요소에 따라 각 연구를 분류하므로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 분류가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두드러진 요소를 중심으로 분류하게

되어 함께 연구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단순화될 수 있다. 권혜영과 조은숙(2020)의 슈퍼비전에 대한 동향 연구에서 각 연구 주제별 범주 분류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연구들의 분류를 제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Topic 4(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수퍼비전)에 포함되는 연구들은 권혜영과 조은숙(2020)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수퍼바이저의 특성, 수퍼바이저의 특성, 수퍼비전 과정, 심리치료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로 각각 나뉘어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픽모델링은 방대한 문서에 기초하여 동일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Barde & Bainwad, 2017), 여러 요소들의 역동적 연결성을 반영하여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동향 연구에서 구분된 주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연구 문제를 구성하는지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토픽에 따른 시기 1과 시기 2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수퍼바이저 역할과 전문성 발달이나 수퍼비전 과정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비율은 두 시기 모두 유사하였다. 반면, 수퍼바이저 특성에 적합한 수퍼비전 모델과 구조에 대한 연구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수퍼비전에 대한 연구들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최근의 수퍼비전 연구들이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담자가 소진이나 역전기와 같은 어려움을 다룰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슈퍼비전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연구들이 이에 주목하는 것은 상담자의 개별화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슈퍼비전의 기능이 다른 교육 과정과 차별화된 것으로(Beidas & Kendall, 2010; Watkins, 2012), 상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감과 유능감을 회복하고 심리 상담의 효과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은실 외, 2022).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국내 심리 상담 슈퍼비전 연구에 있어서 슈퍼바이저에 대한 관심에서 슈퍼바이저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 초점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슈퍼비전의 거시적인 구조나 목적에서 나아가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 및 슈퍼비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한 관계적 요소(회피, 자기개방, 애착, 소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초점의 변화는 실제 슈퍼비전에서 중요한 주제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위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내·외 교육과정과 전문역량기준을 고찰하여 상담심리사 양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은 교육 과정에 슈퍼비전 수업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김민정 외, 2024; 서은경 외, 2024)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슈퍼바이저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을 구성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 주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최근에는 슈퍼비전의 내용은 심리평가의 해석, 사례개념화, 개입 방법과 같은 상담 및 심리치료 역량을 넘어서서,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소진이나 역전이와 같은 어려움을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 다루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슈퍼바이저에게는 상담 실무 전문성과 구분되는 슈퍼비

전 전문성이 필요하겠으며, 이러한 전문성 발달을 위하여 슈퍼비전 과정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가 양적 증가를 보이고,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여전히 심리치료 과정과 내담자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와 연계되어 다뤄진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비전은 결국 내담자의 복지와 치료 효과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실제 슈퍼비전이 심리치료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담자의 특성이 심리치료 과정을 통해 슈퍼비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는 것은 실제 슈퍼비전의 효용성에 대한 확인과 내담자 치료 효과에 대한 증진 및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실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슈퍼비전의 행위자라 여겨져 온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는 있으나, 국외 슈퍼비전 연구 동향은 슈퍼바이저의 특성이 다수 연구된 반면(박성원, 유영권, 2023), 국내에서는 슈퍼바이저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영, 조은숙, 2020; 정지애,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특히 슈퍼바이저에 대해서는 발달 단계에 이어 최근 애착 유형이나 개방성과 같은 개인적이며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는 반면, 슈퍼바이저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슈퍼바이저의 개인적이거나 성격적인 특성보다는 수행과

관련한 임상적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이 상호 양방향적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성격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실제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특성과 관계적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슈퍼비전 연구는 상담심리 실무 현장의 요구 및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연구와 실무의 상호피드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도입, 슈퍼바이저 교육의 의무화, 슈퍼비전 윤리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는 슈퍼비전 연구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퍼비전 연구가 학술적 발전과 함께 실무적 함의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무 현장에서는 슈퍼비전 모델을 고도화하고 상담자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슈퍼비전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심리 상담의 슈퍼비전에 대한 논문을 수집함에 있어 학술지 출판 논문만을 포함하고 있어, 학위논문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서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슈퍼비전에 대한 주요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였기에, 시기 1의 구간이 14년, 시기 2의 구간이 6년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비록 시기 1(68편)과 시기 2(78편)에 포함된 연구물의 수는 유사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데 용이하였으나, 시기 1의 구간이 넓어 해당 시기

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의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연구진 간의 키워드 정제 기준에 대한 합의를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심리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 연구에 대한 연구 동향 파악이 연구 주제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 연구 주제들 간의 관계성을 밝히고, 시기에 따른 연구 내의 주요 키워드의 변화와 지식구조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슈퍼비전이 상담자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내담자에게 양질의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후 지속적인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와 슈퍼바이저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표가 있는 것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된 참고문헌임.
- \*강순화, 주영아, 조하나 (2014).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 및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사회과학연구*, 53(1), 141-171.
- 강은희 (2004). 슈퍼비전 스타일에 따른 슈퍼바이저의 기능 및 과업 수행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홍월, 이수현, 조은이 (2016). 국외 상담 슈퍼비전 윤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 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8), 560-568.

- \*고홍월, 홍지선, 전호정, 조수연 (2015). 집단 슈퍼비전의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16(2), 97-119.
- 권혜영, 조은숙 (2020).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 - 이전 시기(1998년 ~2008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가족과 가족치료*, 28(2), 135-160.
- 김경식 (2015).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통한 스포츠사회학의 지적구조 규명: 22 년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8(3), 1-25.
- 김경철, 한유진, 김인에 (2020).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유아 뇌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유아교육연구*, 40(5), 303-334.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9-53.
- 김민정, 유금란, 허재홍, 신호정, 조효진, 서은경 (2024). 심리상담 전문가 교과과정 표준을 위한 기초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1), 319-345.
- 김세인, 나은영, 이세인, 이해우 (2022). 2022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컨설팅보고서.
- 김수안, 김명찬 (2023). 국내 상담자 자기성찰 및 성찰적 실천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1), 1-32.
- 김수진 (2024).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13년~2022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1), 1-19.
- 김수현, 이영준, 신진영, 박기영 (2020). 거시경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한국경제*의 분석, 26(1), 1-85.
- \*김양선, 신호정 (2017). 초심상담자의 상태불안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과 슈퍼바이저 지지가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4(3), 541-560.
- 김영우 (2017). Do it!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이지스퍼블리싱(주).
- 김용학 (2003).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윤주 (2004). 슈퍼바이저의 과업 및 기능수행과 상담 수련생의 슈퍼비전 만족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정희, 안귀여루 (2018). 슈퍼바이저의 발달 수준, 슈퍼비전 기대수준, 지각된 슈퍼비전 스타일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15-739.
- \*김정희, 하정희 (2020).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5), 281-294.
- \*김지연, 김광웅 (2008). 국내의 상담 슈퍼비전 연구 고찰. *놀이치료연구*, 11(4), 1-22.
- 김혜련 (2022). 슈퍼바이저 스타일, 슈퍼바이저 진정성, 슈퍼비전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화자 (2014). 한국과 미국의 상담윤리규정 비교 연구. *복음과 상담*, 22(1), 9-50.
- \*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슈퍼비전 성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9(3), 1007-1021.
- 라수현, 박철형, 김영근 (2023). 마음건강 서비스

- 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 ‘심리상담서비스’와 ‘심리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15(2), 141-158.
- \*박명준, 김윤희, 신성만 (2017). 슈퍼바이저의 애착 전략과 슈퍼비전 만족도 간의 관계: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8(6), 81-99.
- \*박성원, 유영권 (2023). 상담 슈퍼비전의 국외 연구주제 동향 - 2015년~2022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3) 911-938.
- 서은경, 신호정, 김민정, 유금란, 허재홍, 조효진 (2024). 국내 상담심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현장업무내용에 대한 실태와 발전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1), 347-372.
- 성모아 (2017). 슈퍼비전 만족도와 상담자 소진과의 관계: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수연, 장성숙 (2011). 효과적인 슈퍼비전 요소에 관한 슈퍼바이저의 지각 연구. *상담학연구*, 12(3), 1051-1067.
- \*손은정 (2010). 슈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놀이치료연구*, 13(3), 1-21.
- \*손은정, 유성경, M. V. Ellis (2007). 슈퍼비전 작업 동맹, 역할 어려움, 슈퍼비전 만족도 간의 관계: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61-182.
- \*손은정, 임영선, 유성경, 강지연 (2006).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2.
- \*안하얀, 서영석, 박성화, 이정윤, 최유리 (2017). 슈퍼바이저가 지각한 상담 슈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915 - 952.
- \*오효정, 최한나 (2015). 초보 슈퍼바이저가 겪는 어려움과 대처방법. *상담학연구*, 16(5), 75-94.
- \*윤성근, 유주희, 이승은, 이지영, 장현진, 허다연, 홍예주, 장수정 (2018). 슈퍼바이저의 경력에 따른 초심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 개념도 연구법을 활용하여. *인간이해*, 39(2), 189-216.
- 윤안순, 박효영 (2024).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31(1), 67-84.
- 이다슬 (2016). 초심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공감피로의 관계에서 슈퍼비전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두희, 장유진 (2019). 슈퍼바이저 피드백에 대한 상담 수련생의 인식과 경험. *상담학연구*, 20(3), 217-242.
- 이보람, 정은경 (2016). 학술지 단위 서지결합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연구분야의 학제적 구조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3), 133-154.
- 이성직, 김한준 (2009). TF-IDF의 변형을 이용한 전자뉴스에서의 키워드 추출 기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4(4), 59-73.
- 이수상 (2018).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청람*.
- \*이승미, 강윤심, 최보영 (2019). 슈퍼바이저의 지지와 상담자 소진의 관계에서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6(8), 31-51.
- \*이연옥, 최보영, 김옥진, 서명옥 (2021). 슈퍼바이저의 지지와 상담자 소진 관계에서

- 역전이 관리능력의 조절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11(1), 27-45.
- 이정락, 정재훈, 유호웅, 이윤경, 김지인 (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정민, 안지영, 금창민 (2021).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1983년~2019년까지. *교육치료연구*, 13(1), 185-211.
- \*이홍숙, 최한나 (2013).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경력과 수준에 따른 슈퍼비전 수행과 성과의 차이. *상담학연구*, 14(30), 1679-1698.
- 이후희, 황순영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장애 대학생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5(6), 495-514.
- 임유하 (2021). 빅데이터를 통해 본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829-852.
- \*장세미, 장성숙 (2016). 상담 슈퍼바이저 교육과 훈련 요소 연구: 슈퍼바이저 발달 요인과 슈퍼바이저 역량 요인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488-502.
- \*장재희 (2023). 초심상담자 슈퍼비전 모델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5), 297-324.
- \*전정운, 한재희 (2012).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3(6), 2607-2624.
- \*정갑선, 김영근 (2023). 한국의 대가 슈퍼바이저 발달과정 분석. *상담학연구*, 24(3), 209-245.
- 정미선 (2015). 상담 전공 대학원생의 상담 누적시간, 슈퍼비전 누적시간이 진로걱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활동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택, 류호상 (2009). 지체장애인 특수체육관련 연구 동향 분석: 1985~2008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2(2), 127-150.
- 정원준 (2022). NetMiner를 활용한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기법과 활용. 학지사.
- 정정희, 이효림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누리과정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389-406.
- \*정지애 (2018). 상담에서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국내 연구동향.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0(1), 63-72.
- 조남옥, 조규락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담학연구]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탐색. *상담학연구*, 18(2), 1-19.
- \*조은실, 이지영, 차윤지, 백인규, 양은주 (2022). 한국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된 슈퍼비전 요소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2), 259-285.
- 최지은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영유아 놀이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605-626.
- 최진영, 이한경 (2022). OECD 회원국 심리사제도를 활용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체계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21-242.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통계청 (2023).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상담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윤리규정.  
[https://krcpa.or.kr/user/sub02\\_9.asp](https://krcpa.or.kr/user/sub02_9.asp)
- \*허난설 (2016). 학교상담자 발달 단계별 슈퍼비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7(6), 417-436.
- \*허재경, 김지현 (2009). 성찰 중심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의 변화과정 탐색연구. *상담학연구*, 10(2), 719-740.
- 현용찬, 양지혜, 박정환 (202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한 국내 학습 상담 연구 동향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12(3), 302-310.
- \*홍지영 (2008). 슈퍼바이저 스타일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489-1504.
- Alexander, M. (2009). *Qualitative social network research for relational sociology* [Conference presentation]. *The Australi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9 Annual Conference*, Canberra, Australia.  
<http://www.tasa.org.au/conferences/conferencepapers09/papers/Alexander,%20Malcolm%20paper%201.pdf>
- Baker, D. B., & Benjamin Jr, L. T. (2000). The affirmation of the scientist-practitioner: A look back at Boulder. *American Psychologist*, 55(2), 241.
- Barde, B. V., & Bainwad, A. M. (2017). An overview of topic modeling methods and tools.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Computing and Control Systems (ICICCS)*, 745-750.
- Beidas, R. S., & Kendall, P. C. (2010). Training therapists in evidence based practice: A critical review of studies from a systems contextu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7(1), 1-30.
- Bernard, J. M. (1998). Approved clinical supervisor: a new NBCC credential. *Counseling Today*, 41(1), 19.
- Bernard, J. M., & Goodyear, R.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Allyn & Bacon.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radley, L. J., & Ladany, N. (Eds.). (2001). *Counselor supervision: Principles, process, and practice*. Taylor & Francis.
- Carroll, M. (1996). *Counseling supervision: Theory, skills, and practice*. Cassell.
- Cassoni, E. (2007). Parallel process in supervision and therapy: An opportunity for reciprocity.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7(2), 130-139.
- Dye, H. A. & Borders, L. D. (1990). Counseling supervisors: Standards for prepar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1), 27-29.
- Gazzola, N., & Teiault, A. (2007). Relational themes in counseling supervision: Broadening and narrowing processe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41, 228-243.
- Haugaard Jacobsen, C. (2007). A qualitative single case study of parallel processe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7(1), 26-33.
- Haynes, S. N., & Lench, H. C. (2003). Incremental validity of new clinical assessment measures. *Psychological assessment*, 15(4), 456-466.

- Holloway, E.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s approach*. Sage.
- Kim, S. W., & Gil, J. M. (2019). Research paper classification systems based on TF-IDF and LDA schemes. *Human-centric Computing and Information Sciences*, 9, 1-21.
- Lampropoulos, G. K., Spengler, P. M., Dixon, D. N., & Nicholas, D. R. (2002). How psychotherapy integration can complement the scientist practitioner mode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10), 1227-1240.
- Mazzetti, M. (2007). Supervision in Transactional Analysis An Operational Model.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7(2), 93-103.
- Milne, D. L., Scaife, J., & Cliffe, T. (2009). How should we train effective supervisors? A British consensus on facilitating experiential learning. *In Clinical Psychology Forum*. 203, 7-12.
- OECD (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Neglecting Mental Health Car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 Ramos, J. (2003). Using tf-idf to determine word relevance in document queries. *Proceedings of the first instruc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242(1), 29-48.
- Soheilian, S. S., Inman, A. G., Klinger, R. S., Isenberg, D. S., & Kulp, L. E. (2014). Multicultural supervision: Supervisees' reflections on culturally competent supervision.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7(4), 379-392.
- Tracey, T. J., Bludworth, J., & Glidden-Tracey, C. E. (2012). Are there parallel processes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n empirical examination. *Psychotherapy*, 49(3). 330-343.
- Wampold, B. E., & Holloway, E. L.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Methodology, design, and evalua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research*. Wiley.
- Watkins Jr, C. E. (2011). Does psychotherapy supervision contribute to patient outcomes? Considering thirty years of research. *The Clinical Supervisor*, 30(2), 235-256.
- Watkins Jr, C. E. (2012). Educating psychotherapy supervisor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66(3), 279-307.
- Watkins, C. E. Jr., Viscu, L., & Cadariu, L. (2021). Psychotherapy supervision research: On roadblocks, remedies, and recommendations. *European Journal of Psychotherapy & Counseling*, 23(1), 8-25.
- Westefeld, J. S. (2009). Supervision of psychotherapy: Models, issues, and recommend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2), 296-316.
- Zetzer, H. A., Hill, C. E., Hopsicker, R. J., Krasno, A. M., Montojo, P. C., Plumb, E. I. W., & Donahue, M. T. (2020). Parallel process in psychodynamic supervision: The supervisor's perspective. *Psychotherapy*, 57(2), 252-262.

원고접수일 : 2024. 07. 31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9. 06  
게재결정일 : 2024. 10. 04

## Trends in Counseling Supervision Research in Korea: A Keyword Network Analysis

Gaeul Kim<sup>1)</sup> Soyeon Kim<sup>2)</sup> Sungae Lee<sup>1)</sup> Bora Nam<sup>1)</sup>  
Jaehun Choi<sup>3)</sup> Eunjoo Yang<sup>4)</sup> Jongeun Lee<sup>2)</sup>

<sup>1)</sup>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 PhD Candidate

<sup>2)</sup>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 PhD Student

<sup>3)</sup>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 MA Student

<sup>4)</sup>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 Professor

This study analyzed 142 research abstracts from Korean journals to explore trends and core constructs in supervision research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It examined how regulatory changes by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luding the 2003 Code of Conduct and the 2018 Ethics Code Addendum, influenced supervision research. The comparison of two periods (2004-2017 and 2018-2023) revealed that Period 1 was characterized by global supervision goals and models, whereas Period 2 focused on micro-processes in supervision interactions. Common keywords included ‘supervision’, ‘supervisor’, ‘supervisee’, ‘counseling’, and ‘counselor’ with ‘ethics’ being prominent in Period 2 and ‘client’ being infrequent across both periods. Topic modeling identified a decrease in studies concerning supervision models and structures and an increase in studies on counselor development and challenges in Period 2. These findings suggest an advancement in the number and scope of supervision research and highlight a strong link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Key words* : Supervision, Counseling, Research Trend, Keyword Network Analysis